

군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록

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위 원 회 차 수 | 2025년 제3차 | 비 고 |
| 일 시 | 2025. 12. 12.(금) 14:00 | |
| 장 소 | 군산시청 4층 상황실 | |
| 출석위원 | 9명 | |
| 회의진행 순 서 | 개회-위원장 인사-안건처리-폐회 | |
| 상정안건 | 제3차 군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(안) 심의·의결 | |

위원 발언요지

[의사일정 제1항 제3차 군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(안) 심의·의결]

○ 박서현 위원

- 중간보고 시 논의되었던 보완사항에 대해 부록으로 제시된 부분이 많은데, 부록사업은 부록에만 제시되는 것인지 궁금함
- 기후위기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야하며, 특히 건강 분야의 취약 인구의 경우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적응 능력이 떨어짐
- 예를 들어 기후재난 상황에서 취약인구가 교통수단에서 비상 탈출을 해야할 경우 이를 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기후위기 취약 인구에 대한 사업들도 고려하여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음

(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)

- 부록에 추가로 제안한 사업들은 예산확보 등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
-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의 경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건강분야 보다는 국토연안 분야에 추가 제안하도록 하겠음

○ 강영신 위원

- LPG 공급사업의 경우 5개년 계획이 매년 동일하게 수립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- 중간보고 때 섬지역의 경우 ESS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참고사업으로만 제시되고 실제 이행과제에 반영이 안되는 것 같음

○ 백운초 위원

- 실제로 섬 지역에 ESS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?

(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)

- ESS는 에너지저장시스템으로, 낭비되는 야간 전력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산업체의 경우 우수 적용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으나, 일반 지역에 적용했을 때 우수 적용된 사례를 아직 보지는 못하였음

○ 강영신 위원

- 현재 정부에서도 분산 에너지 특별법에 의거 ‘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사용한다’를 지향하는데 이를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연차 계획에 세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
-

(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)

-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나, 앞서 언급했듯이 담당과에서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반영하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추가 사업으로 제안하고 여건이 될 때 지자체에서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음

○ 문춘호 위원

- 세부이행과제 수립 내용 중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미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음
- 향후 세부사업에 대한 이행평가를 진행하는데 평가 점수 부분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궁금함

(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)

-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라도 제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을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사업으로 선정하여 반영하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반영됨
-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과 설명회 및 간담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음

○ 안성 위원

- 세부이행과제 추진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확보가 가능한지와 2차 적응대책에서 미흡한 부분이 3차 적응대책에 보완되었는지 궁금함
 - 국토연안 부문에서 해수면 수위 상승 시 침수 취약 지역을 파악해서 시민에게 고지하여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음
 - 공공하수도 우수수 분류사업과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임
-

(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)

- 예산확보의 경우 실과 담당자들과 논의하여 결정된 부분이므로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, 국토연안과 물관리 부문의 미흡한 부분은 신규사업 반영을 통해 기존 사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해수면 상승의 경우 풍수해 종합계획과 자연재해 지구 위험 정비 사업을 통해 수치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된 사항임
- 공공하수도 우수수 분류사업은 세부이행과제에 반영되어 있음
- 합류식 관거의 경우 극한의 기후상황에서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오염물질이 처리되지 않은 채 하천으로 방류될 수 있는데 우수수 관거를 분류해주는 것 자체로 비점오염 저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,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또한 오염물질이 다량 포함된 초기 강우를 일시적으로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비점오염 저감 대책으로 볼 수 있음

○ 안성 위원

- 우수 우수 분류사업의 경우 시내권 지역도 아직 분류가 되어있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왜 시외 지역만 사업지구로 포함하였는지 궁금함

○ 백운초 위원

- 시내에 현재 80% 정도 분류작업이 이루어졌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정화조 연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, 예산 부족 등 여러 어려움 때문에 일부 구간이 진행되지 못했으나 순차적으로 분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-

○ **한경봉 위원**

- 적응대책 총괄 부서에서 세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것이라고 보며, 부록으로 제시되어있는 사업 중에는 실제로 추진 중인 사업도 있음
- 세부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아쉬움
- 각 세부 이행사업은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고 보완할 부분들은 실행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를 바람

○ **김영민 위원장**

-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폭우,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
- 위원회 자리를 통해 생각하지 못했거나 누락 됐던 사항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자는 자리이므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군산시가 되었으면 함

○ **백운초 위원**

-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법정계획인 만큼 정부에서 기본적인 핵심 사업을 정해주고 국비를 지원해주는 등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으나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므로 주관부서와 실과에서도 현재 발굴된 사업만큼은 책임감있게 추진하길 바람

○ **박서현 위원**

- 건강 분야는 보건소에서 많은 부분을 소관하고 있는데 기후위기 적응대책 자체는 기후부 주관이고, 보건소 업무는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니 두 부서가 서로 연계하여 거버넌스 체계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길 바람
-

심의결과

[의사일정 제1항 제3차 군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(안) 심의·의결]

○ 제3차 군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(안)

– 심의·의결 결과 : 원안가결
